

기획시리즈

서발턴과 문화 4

민족연구 편집위원회는 좋은 글의 발굴과 환류를 위해 기획시리즈를 계획하였다. 그 첫 번째로 ‘서발턴과 문화’를 선정하였다. 하위 주체들의 재현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들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예술, 영화, 문학, 철학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.

『장자(莊子)』에 나타나는 ‘서발턴’(Subaltern)
인간형의 ‘해체’(deconstruction)적 전략

양승권

